

미국 화학기업 자본투자 “자제”

2002년 13개 화학기업 자본지출 감축 ... 보수·IT 중심 투자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한 미국 화학시장은 현금흐름을 부양하기 위해 대책을 모색중이며 그 전략의 하나로 2002년 투자자본을 제한했다.

Merrill Lynch에 따르면, 미국 화학기업들은 생산능력의 증설보다 부채를 삭감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용 화학제품 생산기업들은 생산능력 과잉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Salomon Smith Barney는 2002년 범용제품의 회복속도는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더뎠는데 주로 범용제품의 과잉공급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27개 주요 특수화학제품 생산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13개는 2002년 자본지출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은 자본지출을 늘렸고 4곳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Nova Chemical은 자본지출을 대폭 삭감한 화학기업의 하나로 2002년 초 자본지출을 1억6800만달러에서 8000만달러로 감축했다.

2002년 자본지출을 15% 이상 감축한 화학기업은 Great Lakes, Olin, Millennium Chemical, RPM, Lyondell, Solutia, Crompton 및 Engelhard 등이 있다.

HB Fuller는 2002년 자본투자금액을 5000만달러로 61% 확대해 확대분 대부분을 플랜트 축소에 사용했다. HB Fuller는 생산능력을 삭감키로 하고 2002년 자금지출을 부분적으로 확대했다. 12-15개 플랜트를 폐쇄하기에 앞서 나머지 플랜트가 폐쇄 플랜트의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작을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Lubrizol, Eastman Cytec, Cambrex, Georgia Gulf, Dow Chemical, MacDermid, PolyOne 및 Ferro 또한 2002년 자본지출을 확대했으나 대부분이 생산량 확대가 아닌 보수, 프로세스, IT 개발에 투자했다.

PPG, DuPont, Albemarle 및 Omnova의 2002년 자본지출은 2001년 수준을 유지했다. PPG는 3억100만달러를 유지했는데 2002년 1/4분기 플랜트 폐쇄에 앞서 6000만-9000만달러를 구조조정비용으로 충당했다. 보수, 환경, 에너지 및 원가절약에 우선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Merrill Lynch에 따르면, 미국 석유화학 시장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나 1990년 중반 이후 아시아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생산량이 예상 밖으로 감소했다.

미국 화학기업의 자본지출(2002)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자본지출	증감률	구 분	자본지출	증감률
Nova	80	▽52	Crompton	110	▽20
Great Lakes	95	▽42	Engelhard	140	▽17
Olin	40	▽38	OM Group	90	▽14
Millennium	70	▽28	Air Products	700	▽13
RPM	40	▽26	Rohm & Hass	350	▽13
Lyondell	230	▽24	Valspar	35	▽3
Solutia	75	▽20			

Lyondell도 2002년 자본지출을 3억400만달러에서 2억3000만달러로 24% 감축했다. 프랑스 Pont de Claix TDI(Toluene Diisocyanate) 플랜트의 확장을 완료하고 Bayer와 합작으로 설립한 PO-11(Propylene Oxide)의 소유지분 50%와 관련한 투자조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PO-11에는 약 7500만달러의 자금이 투자됐는데 Equistar Chemicals LP는 플랜트의 효율증가 및 규제적 환경적 개선을 목표로 자본을 투자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12>